

“살아있는 인간 망”과 Miller-McLemore의 목회 신학 방법론

하재성*

국문초록

목회신학자 Miller-McLemore는 기존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의 연구라는 목회신학의 핵심 메타포를 “살아있는 인간 망”으로 대체하였다. “살아있는 인간 망”은 전통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개인주의적 치유의 범주를 벗어나 개인의 관계망과 사회 문화적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Miller-McLemore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연구 대상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 인간의 망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취하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 망”은 신학과 여성주의 및 사회과학의 지식 사이의 상호적이고 비평적인 관계를 요청한다.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일방성 보다는 상호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여성주의 신학자인 그녀는 세속적 여성학자들과 달리 기독교적 신학전통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자원을 추구하며, 실천의 자리에서 이론을 추구하는 “살아 있는 인간 망”의 방법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중심단어 : 살아있는 인간 망, 밀러-매클리머, 목회 신학, 실천, 상호성

• 논문 투고일: 2010년 09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1일

* 고려신학대학원

• 논문 수정일: 2010년 10월 20일

I. 여는 글

목회 신학자 Bonnie Miller-McLemore의 새로운 목회 신학적 패러다임인 “살아있는 인간 망(Living Human Web)”은 20세기 초 임상목회운동의 창시자였던 Anton Boisen 목사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The Living Human Document)”를 대체하는 패러다임이다. Boisen은 상담과 목회 신학의 연구가 이제는 책이 아닌 인간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Miller-McLemore는 이같은 Boisen의 핵심적인 메타포(metaphor)를 보다 확장하여, 한 인간을 둘러싼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 전체적인 인간 관계와 환경을 포함한 치유으로 목회신학의 대상을 이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인간 망”이 가지고 있는 목회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인간 망이 단순히 연구의 대상만을 확장시킨 것인가?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 망”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나 범위의 확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선 “살아있는 인간 망”이 심리학이 세워 온 개인주의적 상담모델의 제한을 탈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Miller-McLemore의 새로운 메타포는 개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사회 문화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 망”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개인을 격려하여 세우기 위한 신학의 실천성, 인간 관계의 상호성, 사회 과학에 대한 상호적 방법론까지도 함축되어 있다. 특별히 Miller-McLemore 이론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y)과 여성신학의 관점에 근거하여 그녀는 인간의 주관성과 경험을 목회 신학 이론의 중요한 근원으로 생각한다. 한 개인의 환경적 “망(web)”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과 갈등의 현장이야 말로 목회 신학의 이론을 창조하는 현장임을 그녀는 강조한다. 이 같은 그녀의 목회 신학 방법론은 그녀의 논문과 저술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Miller-McLemore가 주장한 “살아있는 인간 망”의 의

미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메타포가 가져온 목회 신학적 의미와 방법론의 변화, 그녀의 이론에서의 상호적 관계성과 실천(praxis)의 중요성, 그리고 그녀가 가진 이론적 근간으로서의 여성주의 신학과 사회 과학적 지식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목회 신학자로서 일관되게 비평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비평을 위한 비평으로 끝나는 신학이 아닌 성경적-신학적 치료의 자원을 모색하는 Miller-McLemore 신학의 건설적 측면을 살피려고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목회/실천신학을 위한 메타포로서의 “살아있는 인간 망”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 연구 대상과 방법적 의미가 21세기 초반 목회 신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살아있는 인간 망 (The Living Human Web)

1996년,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자인 Bonnie Miller-McLemore 박사는 반 세기 이상 목회 상담과 목회 신학의 방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메타포(Metaphor)의 교체를 알렸다. 그녀는 1920년대 안톤 보이슨(Anton Boisen) 목사가 주창한 “살아있는 인간 문서”(a living human documents)를 “살아있는 인간 관계망(the living human web)으로 보완, 교체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목회 상담과 목회 신학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과 학문의 방법론을 조망해 주는 중대한 변화였다.

20세기 목회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 할 수 있는 Boisen의 메타포 “살아 있는 인간 문서”는 신학의 대상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인식 전환이었다. 그 자신이 정신과 병동의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질환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들과 정신질환의 심리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였다. 그로부

터 그는 신학과 의학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을 시작하여 1925년, Worcester 주립병원에서 첫 임상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인간 문서”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의 오랜 문서들을 공부하는 것에 대비된 개념이다.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책을 연구하는 것 보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이 메타포의 주된 의미였다.¹⁾ 이것은 목회자가 정신병 환자들을 비롯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겪는 경험의 종교적, 신학적 측면들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Boisen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특별히 목회신학의 연구 대상의 전환 내지 첨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종교적, 정신병적 경험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문서로서의 환자를 직접 연구해야 하고, 그가 그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하나 님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목회자나 치료자가 인정 내지 인식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Boisen은 당시 임상목회의 전통이 점점 “심리학적인 역동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으로²⁾ 치우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원을 어린 시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분석학의 인과론적인 태도나, 혹은 “윤리적 이상을 최소화시키려는 심리학적 이론의 사용에 대하여 그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였다.”³⁾

1) Charles V.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1984), 37. Bonnie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in *Through the Eyes of Women: the Handbook of Womencare*, ed. Jeanne Stevenson Moessner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6), 16에서 재인용.

2)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1), 105. (이하 DPCC) 그 가운데서도 그는 Freud의 전통을 외려 멀리 하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인정하는 William James에 훨씬 매료되었다.

3) DPCC, 105. 그는 특히 프로이트 보다는 종교적 경험의 독특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 James Williams의 심리학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Boisen의 목회 신학 연구 대상에 대한 단순성 혹은 단수성에 비해 Miller-McLemore의 메타포인 “살아있는 인간 망 (The Living Human Web)”은 목회 신학에 있어서 훨씬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여 준다. 이것은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가시적, 비가시적 환경의 전체적인 연결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 망은 전통적인 심리학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Boisen 메타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Miller-McLemore는 인간 고통의 심층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개인주의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그 고통의 치유에 있어서도 또한 개인적인 내적 심리의 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를 요청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결코 다시는 임상적 순간(clinical moments)이...
심리내적인(intrapsychic) 근거에 의해서만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
한 순간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심리학만으로는 이
관계망을 이해할 수 없다.⁴⁾

Miller-McLemore는 1950년대의 목회 상담 운동의 부흥으로부터 비롯된 개인주의적인 상담 치료 모델(pastoral psychotherapy)과 임상목회교육의 제한성을 지적한다. 이제 신학자들간의 화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학문 영역으로서의 목회 신학과 그에 따른 목회적 케어가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망”은 개인적인 치료로서의 상담으로부터 “광범위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컨텍스트의 일부로 여겨지는 케어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그래서 “치료 패러다임의 한계를 직시하고 신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연마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 윤리학, 문화, 그리고 공공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이해력을 넓혀 가야 함을 요구한다.⁵⁾

4)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8.

5)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9.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 망”이 신학 서적을 읽는 것처럼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감추어진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관계의 그물망 안에 있으면서 아직 자신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⁶⁾ “살아있는 인간 망”을 연구하고 변화와 치유를 추구하는 이들은 이처럼 침묵하는 자들을 격려하여 권력(power)을 나누고(empowerment)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관계망이라는 말을 목회 신학을 위한 메타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Miller-McLemore 는 망(web)의 원래 의미인 거미줄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외려 그녀는 “과정신학으로 훈련을 받은 대학교 교수가 강의실의 매끈하고 깨끗한 흑판에 3차원의 (입체적인) 그물망을 스케치한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⁷⁾ 이것은 “흑판과 분필과 자신의 상상력으로 두텁고, 수없이 많고, 서로 맞닿아 있는 현실의 본질을 자신이 본 그대로 전달하려 했던 John Spencer”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⁸⁾ 거기에 비추어 Miller-McLemore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자신의 참신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려 했던 노력에서 망이라는 개념을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아있는 인간 망”은 목회 신학자나 상담자가 돌보아야 할 인간의 관계적 실존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묘사하도록 요청한다. 그래서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 망”은 심리학과 그 전통을 닮아있는 개인주의적 상담치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목회신학의 연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말해 주고 있다. 동시에 “살아있는 인간 망”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요청하고 있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성 역할이나 성적 경향성, 피부색이나 나이 신체적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본성의 흔적을 따라 사람을 열등 혹은 우등하다고 계층을 나누는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을 요구

6)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21.

7)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6.

8)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6-17.

하고 있는 것이다.⁹⁾

2. “상호적 관계”의 중요성 (mutuality or reciprocity)

Miller-McLemore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상호성(mutuality or reciprocity)일 것이다. 이 용어의 사용은 이중적인데, 첫째는 신학 이외에 목회신학 혹은 실천신학에서 사용하는 심리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 영역과의 관계성에서 사용하는 다른 관점들에 대한 비평적 상호성(critical mutuality or reciprocity to other perspectives)¹⁰⁾이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상호성으로서, 가족 간의 모든 사랑은 쌍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Miller-McLemore에 있어서 상호성은 철저하게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 온다. 어느 한 가지의 ‘객관적인’ 관점에 대한 절대화를 요청하였던 모더니즘적 사고와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상호적이고 비평적 관계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 다른 학문 영역의 목소리에 대하여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한다. 따라서 첫 번째, Miller-McLemore의 “살아있는 인간 망”의 개념에 있어서 신학과 다른 학제들 간의 관계에서의 상호성에는 상호 비평적인 측면이 덧붙여진다. 상호 비평적 관계성이란(critical mutual relationship) 실상 신학과 문화 사이에서 수정된 상호 관계적 방법(revised correlational method)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카고 대학교의 신학자였던 David Tracy가 1970년대에 이미 제안한 포스트모더니즘적 방법론이다.¹¹⁾

9)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6.

10) Bonnie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i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eds. Bonnie J. Miller-McLemore & Brita L. Gill-Austern (Nashville: Abingdon, 1999), 81.

11) 그 이전에 신학자 Paul Tillich은 인간 실존에서 비롯된 질문들과 사회과학의 도움으로 다듬어진 의문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상호 관계적(correlational) 방법을 사용하였다. David Tracy,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Miller-McLemore의 스승이었던 Don S. Browning이 목회 신학과 실천신학의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서 상호 비평적 관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회 신학에 있어서 심리학과 사회학의 등장은 마치 성경 신학에서 역사 비평적 방법의 등장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¹²⁾ 실제로 지난 50여 년간 미국 신학대학원에서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임상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Browning은 심리학이 이미 현대사회의 문화적 이해력의 영역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기독교 전통과 심리학을 포함한 현시대적 학제 사이에서 수정된 상호 관계적 방법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¹³⁾

“살아있는 인간 망”이 내포하고 있는 목회 신학 방법론은 사회 과학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신학을 잃어버린 심리학에의 몰입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특히 목회 사역자들이 상담 기술에 능숙해지고 심리학의 전문용어들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서 “신학적 언어, 목회적 중재, 그리고 교회 회중에 대한 케어보다 상담 테크닉에 더 의지”할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Miller-McLemore는 지적한다.¹⁴⁾ 또한 대중적인 치유 서적들이 “인간의 본성, 성공, 그리고 고민들을 (대중이) 이해할 만한 용어들로 번역하여” 명료하게 대중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목회 신학자들이 “테크닉, 신학적 진공상태,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인

12) Bonnie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in *Through the Eyes of Women: The Handbook of Womencare* ed., Jeanne Stevenson Moessner (Minneapolis, MN.: Fortress, 1996), 10. 이 책은 1977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13) Don S. Browning,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A Critical Conversation in the Theology of Culture* (Philadelphia, NJ.: Fortress, 1987), 6-15.

14)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2-14. Miller-McLemore는 개인 상담에 의해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Don Browning의 지적대로 보다 광범위한 케어의 상황,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케어 내지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성가대의 찬양 연습이나 성경공부, 혹은 여성교회 모임들을 통하여 대화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미 치료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관점에서의 심리 치료 내지 상담이,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역이나 목회 신학에 있어서 더 이상 포괄적인 전문치료 수단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¹⁵⁾

둘째로, “살아있는 인간 망”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상호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특히 압제나 소외당하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런 상호성과 평등의 관계가 유지될 때 건강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가페적인” 사랑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간의 상호성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Miller-McLemore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사랑은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간의 상호성(mutuality)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Miller-McLemore는 그녀의 저서 *Also a Mother* (1994)에서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상호적인가를 Christine Gudorf의 에세이 “Parenting, Mutual Love, and Sacrifice”(1985)를 통해서 소개한다. Gudorf는 의학적으로 장애를 가진 두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매우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쌍방간의 상호적인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

Gudorf의 관찰이 말해 주듯, 사랑의 윤리적 역동은 남성들이나 엄마가 아닌 사람들의 이론이 지금까지 알거나 이해해 온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녀는 진정한 양육이 영웅적인 희생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전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아가페 사랑의 이상에 대하여 질문한다...Gudorf가 발견한 것처럼, “모든 사랑은 희생과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상호성을 지향한다.”¹⁶⁾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랑이 자기의 존재를 비워버린 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줌으로써 다시

15)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3.

16) Bonnie Miller-McLemore, *Also a Mother: Work and Family as Theological Dilemma* (Nashville: Abingdon, 1994), 163.

자신이 보상을 받고 있음을 성찰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곧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 되돌아오는 사랑의 보상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Gudorf의 주장은 아가페의 사랑도 철저한 상호성의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Miller-McLemore는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상호적인 사랑으로 끝맺는다고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 우리의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 그저 줌으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잠시나마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Miller-McLemore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상호적 성격을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가족을 위한 여성들의 자기 희생(self-sacrifice)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아내와 엄마로서 한 여성의 모든 가사 노동과 수고에 대하여 “그것은 일방적이고 대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수고를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이라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수고를 부인하고 사랑의 상호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이용만 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자기 희생이라는 이상이 교회 전통에서 [잘못] 해석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고양되어 오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복음의 메시지의 약속 자체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좋은 여성”과 “좋은 엄마”를 규정하는 불멸의 희생적 사랑의 덕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¹⁷⁾

17) Bonnie Miller-McLemore, *In the Midst of Chaos: Caring for Children as Spiritual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7), 85-86. []안은 필자 삽입.

Miller-McLemore는 모든 종류의 사랑에 희생과 상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때로는 그 상호성이 급격한 변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그녀 자신이 지금까지 자녀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 부모-자녀의 상호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요당하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¹⁸⁾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훈계나 위계질서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가부장적 제도와 위계질서가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다. 일시적인-혹은 전환기적인-위계질서는 “그것이 진정한 상호성을 향하여 움직이는 소망으로 수행되는 권력이든, 권위이든, 지식이든, 책임이든, 혹은 성숙도이든 상관없이 일시적인 불평등을 허용한다.”¹⁹⁾

비록 외형상 불평등하게 보이지만 Miller-McLemore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아이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²⁰⁾ 물론 그것은 독재적인 권위를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한,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고 있는 한- 물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상이 바뀌어 가지만- 부모는 아이들의 “형성”(shape)을 위해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권위는 일시적인 과정이어야 하고 전환기적(transitional)인 것이어야 한다.

Miller-McLemore의 이런 상호성의 주장은 그녀의 스승인 시카고 대학의 Don Browning과도 일치한다. Browning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엄격하고 고차원적인 윤리적 상호성의 요구”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지속적인 자기 희생이 아니라 평등한 상호 존중”이며,

18) Miller-McLemore, *In the Midst of Chaos*, 89.

19) Miller-McLemore, *In the Midst of Chaos*, 89.

20) 여기에서 Miller-McLemore는 여성주의 신학자들의 무분별한 “상호성(mutuality)”의 사용에 대하여 경계한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과의 상호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의아하게 여긴다. Miller-McLemore, *Let the Children Come: Reimagining Childhoo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128-130.

그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²¹⁾ Browning은 “상호성의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지도력이나 선택한 판단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상호성의 윤리가 가족 윤리의 중심에 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진정한 상호성으로 점진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²²⁾고 말한다.

이 같은 윤리적 상호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것이 곧 침묵이다. 특히 여성과 취약한 계층들의 침묵은 일방적인 권력구조가 지속되는데 공헌을 한다. Miller-McLemore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호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각심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조화된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학대적 권력을 견제하거나 창의적으로 현실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Miller-McLemore는 전통적으로 목회 신학의 네 가지 덕목으로 인정되어 오던 치유(healing), 유지(sustaining), 인도(guiding), 화해(reconciling)를 상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또다른 네 가지의 덕목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곧 저항(resisting), 해방 liberating), 양육(nurturing),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기 (empowering)이다.²³⁾ Miller-McLemore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인간 망”이 추구하는 평등과 상호성의 원리는 곧 고통 받는 사람들이 불평등한 구조적 컨텍스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전인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구속받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놓임 받는 것이다.

3. 신학에 있어서 실천(praxis)

미국의 실천신학회를 세우고 이끌어 왔던 Don Browning은 실천신학에 대

21) Don Browning, “Children, Mothers and Fathers in the Postmodern Family,” in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eds. Pamela D. Couture & Rodney J. Hunter (Nashville: Abingdon, 1995), 81.

22) Browning, “Children, Mothers and Fathers,” 84.

23)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80.

한 그의 고전적 저서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에서²⁴⁾ 모든 이론과 신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론이 먼저 생기고 실천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실천이 먼저 등장을 하였다. 그 실천에 따라 실천적인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이론들은 다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천신학의 실천성에 대한 Browning의 통찰력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실천 철학자인 독일의 Hans Gadamer의 실천적 방법론에 기인한 것이다. 그의 실천철학적 해석학에는 객관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력(오성, understanding)에 있어서 경험과 주관적 편견 까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다. Miller-McLemore가 스승 Don Browning과 더불어 가장 최근 편집한 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Children and Childhood in American Religions*은 “Hans-Georg Gadamer와 Paul Ricoeur의 해석학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 자기 해석과 자기 이해에 있어서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²⁵⁾

목회 신학과 영혼 돌봄의 사역에서 실천의 중요성은 Browning의 강조점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론에서 실천이 나온다는 전통적인 실천신학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사실상 실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Miller-McLemore에 있어서 “실천신학은 이론을 실천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 그 이상”이다.²⁶⁾ 실천 신학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지금까지 배운 교리나 이론적인 신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신학이 아니다. 외려 실천신학이란 “목회자의 노하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중과 사회 전체 가운데서 현 시대의 문제와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참여(engagement)하는 것을

24) Don S.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25) Don S. Browning & Bonnie Miller-McLemore, *Children and Childhood in American Religio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19.

26) Bonnie J. Miller-McLemore, “The “Clerical Paradigm”: A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 11 (2007): 28.

말한다.”²⁷⁾

물론 전통적인 관점과 같이 실천신학을 목회자에게 노하우를 말해 주는 정도의 성직 패러다임(Clerical Paradigm)²⁸⁾으로 여기고, 그 실천의 근거를 실천이 배제된 “순수” 신학에 의존한 채, 실천신학은 단순히 응용신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경험과 실천을 배제하고, 오직 인식 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돈되는 순수한 학문의 문제로만, 혹은 상아탑에 갇힌 일정한 계층만의 언어로만 정돈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Browning과 Miller-McLemore는 실천 안으로 신학을 이끌어 들이고, 현실의 해석과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 신학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원화를 해소하고, 실천과 이론의 통합을 추구한다.

Miller-McLemore는 실천 자체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학이 그와 같이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개별적 특수 사정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학은 실천적이어야 하고, 현실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 문화적, 정치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직 패러다임에만 기대어 있으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실천 그 자체, 다시 말하면 개인의 존재와 사회 정의의 이슈들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실천에 대한 성직 패러다임의 결과 여러 미국의 대학교들로부터 신학 연구가 제외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고 Miller-McLemore는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대학교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의 “명료성, 정확성, 그리고 다른 지식 체계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³⁰⁾ 대학교의 학술적 패러다임은 그 본성상 실천적 패러다임을 배척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 망”이 담지하고 있는 목회 신학의 실천성은 비평적

27) Miller-McLemore, “The “Clerical Paradigm,”” 22.

28) 이것을 신학자 Edward Farley는 “성직 패러다임(clerical paradigm)”이라고 명명하였다. 신학자로서 Farley는 전통적인 실천신학 방법론, 즉 이론에서 실천으로, 신학에서 목회적 노하우 창출로 이원화되는 과정을 성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29) Miller-McLemore, “The “Clerical Paradigm,”” 24.

30) Miller-McLemore, “The “Clerical Paradigm,”” 36.

이면서도 학문적인 신학적 사고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신학적 가치의 체현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³¹⁾ 이미 Boisen에서 시작된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학의 실천적인 성격은 Miller-McLemore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견고하게 된다. 거기에는 내담자나 회중 개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iller-McLemore의 신학은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하여 매우 포용적으로 신학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특히 *Let the Children Come* (2003)을 집필하면서, 그녀는 매우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실천 중심성을 외친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실천신학적 지식은 “경험의 지혜”에 대한 연구, 혹은 양육받은 것을 실천으로부터 생긴 생각과 거꾸로 아이들을 기를 때의 생각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이 책은 기본적으로 실천신학에서의 노력의 하나이다.³²⁾

이에 비해 Miller-McLemore는 *In the Midst of Chaos*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회 신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실천적인 태도를 천명한다.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가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의도하는 것은 펌프를 설치하는 일, 곧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자신의 현재의 믿음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신학자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 논의라고 여기지 않으려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신학적인 것으로) 본다. 바로 그 구체성의 상태에서 그것은 곧 면밀한 관찰, 즉 서로에 대한 우리의 상호적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친화적인” 관찰이다. 아마도 상호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이야기하

31) Miller-McLemore, “The “Clerical Paradigm,” 37.

32) Miller-McLemore, *Let the Children Come*, xxviii-xxx

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생활을 시도해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³³⁾

이처럼 Miller-McLemore는 신학자로서,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을 이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 망”은 곧 경험-친화적으로(experience-near)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녀는 문화학자 Clifford Geertz가 사용하였던 “광범위한 진술”(thick description)을 개념을 도입하여,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세부적이고 면밀한 사실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목회 신학을 실천적으로 세우려 한다.³⁴⁾ 현장과 실천은 Miller-McLemore의 목회 신학적,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다. 결국 그녀의 “살아있는 인간 망”은 억압받는 여성들이나 소수인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의 실제 경험과 상황을 이론화 하는 것이 곧 그녀의 실천 중심적 방법론이다.

4. Miller-McLemore 목회 신학의 두 가지 근간: 여성주의 신학과 사회과학

Miller-McLemore가 목회 신학에 여성주의적 원리를 소개할 때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저명한 여성주의 흑인 저술가이자 운동가인 bell hooks이다. 그것은 Miller-McLemore가 bell hooks의 실천적인 이론 수립의 방식, 즉 인간이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bell hooks는 여성주의를 “하나의 급격한 정치적 운동”으로 정의함으로써,³⁵⁾ 이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압제를 종식하려는 투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Miller-McLemore의 “살아있는 인간 망”에 긴밀하게 연결된 방법론

33) Miller-McLemore, *In the Midst of Chaos*, 88.

34)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24.

35)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79.

이다. 이는 관념적인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통과 갈등의 현장에서 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며 고난과 신앙의 주관성을 멀리하려는 전통적인 신학의 방법론으로부터도 매우 동떨어진 신학 방법론이라 하 릿 있다. “순수 객관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력을 형성하는 특별한 편견이나 자신의 기호”를 측정하고 참조해야 하는 것이다.

Miller-McLemore는 압제당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간 생활의 컨텍스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목회 신학적 방법론에 헌신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간의 직접적인 고난의 경험과 그에 대한 공흥의 반응을 목회신학의 주된 방법론적 원리로 삼고 있다 “고 선언한다.³⁶⁾ 그리고 목회 상담자나 신학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컨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요청“인데, Miller-McLemore자신의 이 같은 관심이 부분적으로는 해방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³⁷⁾ 해방주의에서 비롯된 관점이란 곧 “침묵을 깨고, 선지자적 행동을 주장하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⁸⁾

불평등과 압제를 지속시키는 주된 권력 체계에 대하여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 목회 신학의 새로운 임무라면, 이제 “살아있는 인간 망”은 목회 신학의 방법론에 중대한 전환을 인정하는 다양한 목회신학자들이 공유한 관점이다.³⁹⁾ 그래서 이제 목회신학자들이 비록 개인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목회신학자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체계적 구조, 개인주

36)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92,

37)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5.

38)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91.

39) Miller-McLemore는 James Poling의 *The Abuse of Power*(1991), Pamela Couture의 *Blessed Are the Poor?* (1991), Larry Graham의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s* (1992)가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책들이 신학교의 목회학개론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한다.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6.

의, 자존감, 이성주의, 물질주의 등등과 같은 것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물론 bell hooks가 주장하는 것처럼 Miller-McLemore도 삶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 추구를 요청하면서 여성주의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Miller-McLemore와 bell hooks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시기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상호적 대화와 재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공황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곧 이론이 창조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Miller-McLemore의 이론과 방법론에서 등장한 상호성 (mutuality 혹은 reciprocity)은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서구 중심적 모더니즘이 가진 사상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어느 한 관점의 일방적인 독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 특히 중앙 혹은 주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관점을 학문적 활동 속에 초청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주의에서의 상호성은 사회적으로 어느 인종이나 계층, 혹은 어느 제한된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물론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 까지도-을 배제한다.

따라서 20세기의 전통적 목회 상담은 심리분석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심리 내적(intrapsychic) 검사였지만, 여성주의 목회 신학에서는 개인의 심리 분석을 넘어 인간 고통의 사회 문화적, 심리 종교적 차원의 문제까지 다룰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차별화(differentiation)을 이야기할 때 여성주의적 치료 관점에서는 그것을 타인들과 연결된 개인화”를 지칭한다.⁴⁰⁾ 여성 학자들이 여성의 케어를 위한 저술의 작업을 할 때에도 역시 학자 상호간의 지식에 대하여 면밀하게 연결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어떤 케어의 경우이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외되거나, 새로운 참가자의 입장을 막는 것에 대하여 Miller-McLemore는 예민하게 저항한다. 2003년도에

40)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23.

출판한 자신의 책의 제목을 *Let the Little Children Come!*이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대신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명분으로든 소수의 사람들을 케어와 신학의 주체로 여기고 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예를 들어 Miller-McLemore는 David Augsburger의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1986)에 등장하는 초문화적 공감(interpathy)의 개념의 유용성을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케어의 대상이 되는 제2의 당사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케어를 하는 주체라고 해서 상대의 문화가 케어를 받기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힘 있는 주된 문화의 일방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Augsburger는 여성주의가 보는 것들, 즉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염증의 감정, 폭력, 두려움, 혐오”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⁴¹⁾ 혹 성적학대의 희생자가 된 여성에 대하여 목회자나 상담자가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공감함으로써 내담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공감은 외려 해로운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살아있는 인간 망이 말하는 Miller-McLemore의 상호성은 당사자간의 매우 철저하고 근본적이며 평등한 상호성이다. 이런 존중과 상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Miller-McLemore 자신은 “다른 전통이나 이야기들이 목회 신학의 일반적 형성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열린 자세로 기대한다.⁴²⁾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성들의 경험에 대하여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망은 여성 학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비밀스러웠던 부분에 이르기까지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41)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9.

42)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21.

가운데는 백인 여성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소수 인종 여성들의 관점까지 포괄하여 그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침묵을 제거하는 것은 Miller-McLemore의 신학 형성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가 경계하는 침묵이란 고통당하는 이들의 침묵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루어지는 형태의 침묵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부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그저 침묵하고 순응하기만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가장자리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외쳐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여성주의적 신학은 외치고 있다.

Miller-McLemore는 목회 신학 내지 실천신학의 학제가 잘 정돈되고 깔끔한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상처 및 치료의 현장과 이론 형성의 학문적 세계가 함께 관계의 망을 자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Miller-McLemore는 성경을 다시 읽고, 전통적인 신학을 다시 점검하려는 시도를 한다. 물론 그녀의 성경 다시 읽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Church of Christ (Disciples)의 목사답게 그녀는 문제의 출발점을 현대의 문화적, 학문적 인간 이해로 잡고 있다.

5. 치료와 회복 자원의 중요성

필자가 Miller-McLemore 교수를 위하여 강의 조교 (Teaching Fellow)를 할 때 과목 학생들을 위하여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목회자의 탈선에 대하여 강의를 할 때 Miller-McLemore 교수가 거듭하여 강조하며 지도했던 것이 있다. 자극적인 폭로와 실태 보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한 자원(resources)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다. 문제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해체, deconstruction)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재건, reconstruction)에 그녀가 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회의와 비판을 하되 중국에 남는 것이 없을 만큼 허무주의적인 비판을 허

용하지 않는다. 비록 전통적인 기독교와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가정의 의미와 재건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과 신학적 자원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Miller-McLemore는 여타의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여성학자 Rosemary Ruether는 가부장적인 가족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Miller-McLemore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그 대신 Miller-McLemore는 자신의 저서 *Also a Mother*를 통하여, 문화가 지정해 주는 성 역할의 순응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가족 간의 상호성과 평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대안의 가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땅이 지향하는 목회 신학적 비평의 틀은 매우 철저하고 행동과 실천을 요청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연시 해 온 가부장적 사회 문화 혹은 가정 체계적 구조들을 비판하되, 대안으로서의 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성경과 신학의 자원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기에 연약한 자들을 격려 하는 긴요한 자원들이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들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본질적 창조의 평등성이 현대의 여성 차별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소외 되고 압제받는 개인과 계층들에 대하여 민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Miller-McLemore는 제시한다.

신학적 자원을 찾기 위하여 Miller-McLemore는 성경과 신학 전통을 다시 읽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 활용 가능한 공리적 모델을 추구한다. 비록 성경적 관점이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하더라도, 남성중심의 “이야기와 상징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전통이 곧 중요한 격려의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Miller-McLemore는 “일반적 여성주의자들 보다도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훨씬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취해왔다”고

진술한다.⁴³⁾ 왜냐하면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일반 여성주의자들이 모성에 대한 1970년대나 1980년대에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여성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1979)의 저자인 Alice Miller는 매우 보편적인 목소리로 어린 아이들의 욕구를 부모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고발하였다. 한편 Miller는 심리학이 가진 진단과 치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설교나 영성 등에 대하여 그저 상처를 덮는 것이라고만 말한다. 그녀의 주장이 도덕주의적 가르침이나 신학에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Miller-McLemore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 신학이 도덕적 완성이나 정죄의 측면에서 잘못을 저질러 왔다면, 심리학은 도덕적 순진성의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감정적 혼란에서 온 것이지 악을 향한 인간의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⁴⁴⁾ 결국 궁극적인 문제 판단의 기준은 신학이 된다. 신학이 심리학적 지식과 이해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심리학적 인과론을 초월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닫는 글

“살아있는 인간 망”은 우선 살아 있는 인간 문서를 연구해야 한다고 외쳤던 Anton Boisen의 개인화된 인간 연구로부터 인간을 관계 속에서 투영하고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연구 대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연구 방법론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보다 넓은 관계적 상황으로의 관심 확대는 현대 사회와 문화를 재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심리학을 비롯한 여타 사회

43) Miller-McLemore, *Let the Children Come*, 117.

44) Miller-McLemore, *Let the Children Come*, 50.

과학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살아있는 인간 망은 목회신학의 연구가 개인 심리 치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관계적 환경의 망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Miller-McLemore는 이 메타포를 통해 신학과 치유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 실천의 중요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가족 체계, 개인과 가정을 둘러싼 문화, 사회, 기관 등과 같은 시대적 정신을 비롯한 종합적 관계 망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이 홀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해한다. Miller-McLemore는 개인성과 일방적인 실천신학적 방법론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이전의 메타포(metaphor)를 넘어 한 개인의 관계성 속의 자아를 바라보고, 보다 광범위한 상황적 환경으로서의 인간 이해와 치료 영역 확장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목회 신학의 연구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철저한 상호성과 상호 관계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상호 간의 비평적 관계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심리학 역시 개인주의적 관찰의 도구로서만이 아닌 서로 연결된 자기됨(selfhood)에 대한 이해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인간 망”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목회신학의 새로운 원리와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Miller-McLemore 의 신학적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론, 경험, 그리고 실천이 전체적으로 조화된 통일성(integr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깊은 독서와 경험 가운데에서의 실천신학적 사유, 광범위한 리서치와 철저한 논리, 신학과 사회 과학 사이에서 균형 잡힌 그녀의 신학은 21세기 목회/실천 신학이 가야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신학 방법론은 곧 취약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어린 관심과 소외나 압제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은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비평적 사고와 치열하고 열정적인 실천에 의해 완성에 접근하고 있다.

목회/실천 신학은 관념적인 이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에 Miller-McLemore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느끼고, 고통 받는 영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다소 진보적인 그녀의 개방성은 필자를 비롯하여 고백적 신앙을

가진 이들을 다소 불편하게 할 만큼 차별 없이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외 없이 들려지기를 기대한다. Miller-McLemore 교수에게 있어서 실천은 곧 이론이며, 이론은 다시 실천으로 깊고 풍성하게 돌아온다. 목회 신학자이자 실천신학자로서 Miller-McLemore는 쉽게 정돈되지 않는 실천에 집착할수록 실천신학의 영역 자체의 학문적 위상을 유지하는데 곤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관성이나 개별적 경험을 뺀 목회/실천신학은 불가능한 것이다.

Miller-McLemore가 가진 꿈의 하나는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가부장적 편견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에서의 다양한 상담과 치유의 운동이 교회 사역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자리매김을 해 가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목회 상담은 앞으로도 상담소나 상담 연구소의 개설, 상담료의 책정과 심리검사 실시, 국가 기관에 의한 인증 제도 등과 같은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목회 상담은 심리학에만 매달린 개인 치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과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가야 한다. 세류의 유행에 따라 다양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정부 보조에 의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목회 상담의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특히 “교회 사역과 신학적 소통에 대하여 관련성 혹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⁴⁵⁾

45)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15.

【 참고문헌 】

- Browning, Don S.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A Critical Conversation in the Theology of Culture*. Philadelphia, NJ.: Fortress. 1987.
- Browning, Don S. “Children, Mothers and Fathers in the Postmodern Family.” In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eds. Pamela D. Couture & Rodney J. Hunter. Nashville: Abingdon. 1995.
-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r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 Browning, Don S. & Bonnie Miller-McLemore, *Children and Childhood in American Religio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 Gerkin, Charles V.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1984.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1,
- Miller-McLemore, Bonnie. *Also a Mother: Work and Family as Theological Dilemma*. Nashville: Abingdon. 1994.
- Miller-McLemore, Bonnie. “The Living Human Web,” In *Through the Eyes of Women: the Handbook of Womencare*. ed. Jeanne Stevenson-Moessner. Minneapolis: Fortress. 1996.
- Miller-McLemore, Bonni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In *Feminist and Womanist Pastoarl Theology*. eds. Bonnie J. Miller-McLemore & Brita L. Gill-Austern. Nashville: Abingdon. 1999.
- Miller-McLemore, Bonnie. “Feminist Studies in Psychology: An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 4 (2000).
- Miller-McLemore, Bonnie. *Let the Children Come: Reimagining Childhoo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 Miller-McLemore, Bonnie. *In the Midst of Chaos: Caring for Children as Spiritual Practice*. San Fracnisco: Jossey-Bass. 2007.
- Miller-McLemore, Bonnie. “The “Clerical Paradigm”: A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 11 (2007).

【 Abstract 】

The Living Human Web and Pastoral/Practical Theology of
Bonnie Miller-McLemore

Jae 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Dr. Bonnie Miller-McLemore, a feminist pastoral theologian at Vanderbilt University, has replaced a long-standing metaphor of the Rev. Anton Boisen's "Living Human Documents" in pastoral theology with "The Living Human Web." Boisen, the founder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in America, wanted students in theology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chaotic psychological illnesses as a religious one in nature, an experience of encounter with God. His metaphor, which has provided a fundamental orientation toward human understanding in pastoral theology for decades, turns its focus on religious understanding of patients away from old documents and books in theology. Miller-McLemore's replacement means more than a simple extension of a research object from an individual person to his or her surrounding relational environments. It is true that "the Living Human Web" as a new paradigmatic metaphor excels the scope of individualistic psychology. However, the metaphor also signals a radical shift of pastoral/practical theological methods from a correlational method to a revised correlational method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Miller-McLemore has been actively engaged with feminist theories and social sciences, but she consistently pursues resources of the healing of the web from biblical and theological tradition. She employs and maintains a mutually critical method when she has to utilize social sciences according to the declared motto in order to fulfill its ideals.

Key words: The Living Human Web, Miller-McLemore, pastoral theology, praxis, mutuality or reciprocity